

# 광주에 사는 사회초년생 A(여·26)씨는 얼마 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개봉도 하지 않은 새 가방을 절반 가격으로 '득템'했다. 평소 갖고 싶었던 가방이었는데, 주머니 사정으로 구입하지 못하던 차에 망설임 없이 채팅을 걸고 구매했다. A씨는 "중고거래의 재미를 알았고 이번 봄에는 입지 않는 옷을 내놓아 판매도 할 계획"이라면서 "봄을 맞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지고 싶던 브랜드의 옷들이 저렴하게 올라와서 충동구매 욕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웃어보였다.

# 두암동에서 9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B씨는 얼마 전 창고 정리를 하며 꺼낸 옷들을 사설 헌 옷 처리 업체에 돈을 받고 처분했다. 젊을 때 입었던 자신의 옷부터 성장하면서 입지 못한 아이들 옷까지 모아놓으니 한 가득이었다. 맘 카페 등에서 헌 옷 처리에 알짜배기라고 소문이 자자해 속는 셈 치고 이용했는데, 1만7000원을 받았다. B씨는 "집도 버리면서 돈도 벌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면서 "앞으로도 버릴 물건이 있으면 중고거래까지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 티끌 모아 태산...헌 옷 거래 성행

“고물가에 한 푼이라도 벌자” 수거함 대신 사설업체에 판매  
20kg 미만 무상·20kg 이상 1kg당 700원 받아...기부도 늘어

이런 저런 핑계로 쟁여두었던 오래된 옷들을 과감하게 처리하려고 마음 먹은 계절인 봄철, 광주지역에서는 과거 의류수거함에 버려지던 옷들이 중고거래나 사설업체 등에 팔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고물가에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 지역민들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기부로 헌 옷을 정리하려는 지역민들도 늘고 있다. 환경부 폐기물처리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버려지는 폐섬유 폐기물은 2019년 7373t, 2020년 6792t, 2021년 7709t으로 한해 평균 7300여t에 달한다. 헌 옷을 포함한 폐섬유들은 일반 쓰레기나 의류수거함을 통해 버려졌지만 이제는 거래물품이 되고 있다. 보통 옷장에서 비워야 할 옷은 ▲중고판매나 기부가 가능한 상태의 옷 ▲버려야 할 옷 등 두가지로 분류가 된다. 최근 당근마켓과 에브리타임, 중고나라 등은 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광주지역민들이 올리는 헌 옷 판매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고물가에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심리와

빈티지 패션 유행이 맞물려 중고거래가 성행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옷들은 새 제품 구매가를 기준으로 절반 수준에 가격이 정해지지만,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저렴한 브랜드 일수록 판매 할인율은 더 컸고 고가의 브랜드는 할인 폭이 더 적은 것이다. 버려야 할 옷들도 의류수거함에 버리지 않고 사설업체를 통해 판매를 하는 지역민이 늘고 있다. 광주지역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서는 필요없는 물건을 처분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사설 헌 옷 수거 업체'의 게시 글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사설 헌 옷 수거 업체의 경우 의류수거함 등에서 처분이 제한되는 이불까지도 버릴 수 있어 '겨울 집' 내놓기에 제격이라는 반응이다. 온남동에서 초등생을 키우고 있는 C씨는 커뮤니티에 "지난해에 창고 정리를 하면서 헌 옷 47kg 처분하고 올해도 봄철 목은 옷 18kg을 정리했다"며 "비대면으로 수거할 수 있어 편리하고

무게에 따라 돈도 받을 수 있었다"고 후기를 남겼다.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한 광주지역 사설 헌 옷 수거업체는 주로 봄이 시작되는 3~4월에 가장 바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옷 수거는 요청에 따라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진행되며 무게가 20kg 미만이면 무상, 20kg 이상부터는 1kg당 700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설업체를 이용해 헌 옷을 판매한 옴오(23)씨는 "이사하다 보니 옷과 가방 등 버려야 할 짐이 너무 많아 불우이웃에게 일부 무료 나눔하는 사설 헌 옷 수거 업체를 찾아 이용했다"며 "원하는 수거 날짜와 시간 등을 문자로 전달하니 다음날 바로 가져가면서 무게에 따라 돈도 주고, 편리하기까지 해 다음번 이사에도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익과 별개로 의미있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민들도 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 등에 기부를 해 전국 110여개(광주 4개) 매장에서 재판매해 발생한 금액으로 소의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외에도 해외 개발도상국 등으로 헌 옷을 전달하는 '웃캔', 광주시 남구의 '우리가 Green 남구' 캠페인 등 헌 옷을 기부하는 지역민들도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강제동원 정부안 무효” 열기 뜨겁다

광주·전남 시민단체 등 전국서 이틀만에 2만5000명 서명

일제강제동원 정부 해법안에 반대하는 10만 명 국민서명이 시작된지 이틀만에 2만 5000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광주에서도 오프라인 서명이 진행된 지 한시간만에 349명이 정부의 해법안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서명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을 비롯한 618개 단체가 함께하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전국적인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시민모임 등 광주·전남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도 지난 11일 광주시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간 동안 거리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서명운동은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를 내세우며 10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서명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미 온라인에서만 목표치의 4분의 1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6일 예정돼 있는 한일정상회담 이후에도 매주 토요일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적 공분을 모으는 게 시민모임 측의 설명이다. 광주에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동구 충장우체국에서 제2차 오프라인 서명운동이 예정돼 있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책임을 피해국이 뒤집어 쓰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해법안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심상치 않다. 분노한 민심이 이번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참고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시민모임과 함께 12일 상정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 동구 인구 3년 연속 늘었다

2022년 10만 5909명

광주시 동구 인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해 '순이동률' 전국 상위 9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통계청의 '2022 국내 인구가동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군·구 289곳 중 106곳의 지자체에서 인구 순유입(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경우)이 이뤄졌다. 이 중 광주시 동구는 인구 순이동률 2.8%를 기록해 전국 상위 9위에 올랐다. 순이동률은 인구 1000명당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순이동자 수 비율을 뜻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순유입이 많이 이뤄져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동구의 지난해 순이동자 수는 총 30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인구 또한 지난 2020년 10만 2897명, 2021년 10만 3470명, 2022년 10만 5909명 등 3년 연속 증가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 2019년 순이동률 4.6%, 순이

동자 수 4000여명으로 인구 순유입 상위 7위 지자체에 올랐으며, 2020년에도 상위 10위(순이동률 4.6%, 순이동자 수 5000여명)를 달성한 바 있다. 최근 광주는 서울·경기 등 타 지역 전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 광주시 인구 순이동률은 -0.5%로, 순이동자 수 또한 -7600명을 기록했다. 광주 동구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계림동·그랜드센트럴 아파트, 두산위브, 아이파크SK뷰 등 10여 곳의 주택 재개발단지 입주자 이뤄지면서 인구 순유입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오는 9월까지 월남·내남·용산·선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서 인구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동구청은 설명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유입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1회용품 사용을 줄임시다.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지난 10일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1회용품 사용 감축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호남고속도로 서순천IC~고서JCT 부분차단 공사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호남고속도로 서순천IC~고서JCT 구간에서 전면 시설개량공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시설개량공사가 이뤄지는 구간은 총 69.6km 길이다. 왕복 4차로 중앙방향 각 1개 차로씩 구간별로 나누어 부분 차단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단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주말과 여름 휴가 기간, 추석 명절 등에는 공사 및 도로 차단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공사에서는 노후화된 도로를 신설 고속도로 수준으로 개량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전 구간의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고 신형 가드레일을 설치하며 중앙분리대 등 노후화된 안전시설물을 새로 교체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전방 작업 및 교통상황을 상시 안내하고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이나 로드플러스 홈페이지(www.roadplus.co.kr) 등을 통해 우회도로 또한 안내할 방침이다. 우회도로는 국도 13호선, 17호선, 22호선, 27호선 등이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차량정체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행 쾌적성과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며 "주행 시 작업장의 주의 표지판을 발견하면 시속 6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행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절찬 판매중

이방인

이기원

문이당 | 15,000원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